

## 1960~1970년대 과학소설에 대한 인식과 창작 경향\*

### — 『학생과학』 지면의 과학소설을 중심으로

최애순\*\*

1. 서론
2. 『학생과학』의 과학용어와 기술로써의 과학
  - 2-1. 『학생과학』을 통한 새로운 과학용어의 도입
  - 2-2. 기술로써의 과학: 과학소설의 직업 세분화와 중등 실업교육
3. 공상에 대한 거부로써의 '과학'소설
  - 3-1. 공상과학소설에 대한 인식과 지나친 과학용어 설명
  - 3-2. 현실성을 내세운 과학소설의 소재: 기상변화와 식량문제
4. 과학소설 장르의 발달과 우주시대와의 괴리
  - 4-1. 전쟁소설이 되어 버린 우주과학소설
  - 4-2. 사라진 대륙의 전설과 해양과학소설
  - 4-3. 최첨단 무기와 방첩소설
5. 『학생과학』이라는 지면과 국내 과학소설 작가의 괴리

####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65년 창간되어 새로운 과학용어의 도입과 과학기사, 과학소설의 주요 지면이었던 『학생과학』을 중심으로 국내 과학소설의 경향을 짚어보았다. 당대 과학소설의 소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과학기사와 국내 과학소설 경향 사이의 간극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과학』에 실린 과학기사에 주목했음을 밝혀 둔다.

『학생과학』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잡지이다. 그러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3S1A5B5A07047816).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학생과학』에 과학소설을 실었던 작가들은 청소년 작가들이 아니라 서광운, 이동성, 강성철, 오영민 등의 SF 작가 클럽의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의 『학생과학』에 신고 있었지만 청소년 독자들로부터 등장인물에 왜 청소년은 나오지 않느냐는 항변을 듣기도 하고, 어렵고 생소한 용어의 나열이라는 혹독한 평을 듣기도 한다.

1960~1970년대 과학소설 작가들은 과학소설이 ‘공상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우주나 바다 밑 세계를 그릴 때에도 식량문제를 고민했고, 기상변화가 과학소설의 서두에 종종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수적으로 우세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낯설고 먼 우주과학소설보다 해양과학소설이라든가 스파이소설 등의 발달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생활 과학과 과학소설의 긴밀한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공상, 과학소설, 공상과학소설, 전쟁소설, 방첩소설, 기술, 서광운, 미신, 텔레파시, 우주, SF작가 클럽, 북극성의 증언, 관제탑을 폭파하라)

## 1. 서론

과학소설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된 때는 최근인 2010년대 들어서면서이다.<sup>1)</sup> 여타 다른 문학에 비해 혹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이다. 과학소설 연구가 다른 장르에 비해 뒤처지게 된 것은, 국내에서 과학소설을 아동문학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바로 해방 후 최초 창작 과학소설의 등장 혹은 시기에 관한 것이다. 과학소설 연구 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1) 김주리, 『『과학소설 비행선』이 그리는 과학의 제국, 제국의 과학』, 『개신어문연구』34호, 2011, 169-196쪽; 김종방, 『1920년대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과정 연구: 『80만년 후의 사회』와 『인조노동자』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호, 2011, 117-146쪽.

할만한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은,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장르문학과 순수문학의 경계가 뚜렷하듯이, 같은 장르문학이라 하더라도 아동문학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을 배제한다면, 한국 창작 과학소설의 역사는 텅 빌 수밖에 없다.<sup>2)</sup> 연구자들이 문운성의 『완전사회』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소설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과학소설은 1960~1970년대 『학원』, 『학생과학』, 『새벗』과 같은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잡지에 주로 게재되었다. 과학소설 연구를 위해서는 1960~1970년대 중고등학생을 주요 독자로 했던 잡지들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소설 연구자들은 과학소설을 마치 아동문학의 전유물처럼 인식하는 것에 반발하고, 본격문학의 범주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장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과학소설을 배제시키려 한다. 해방 후 최초 ‘본격’ 과학소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바로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이 질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과학소설 연구들은 그래서 ‘본격’ 과학소설과 청소년 과학소설로 양분되어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문운성의 『완전사회』를 최초의 ‘본격’ 창작 과학소설로 보는 견해들<sup>3)</sup>,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과학소설의 주요 지면이었던 『학생과학』에 관한 연구들,<sup>4)</sup> SF 작가 클럽 회원의 작

2)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 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0집, 2013, 213-242쪽.

3) 이정옥,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 문운성의 『완전사회』론』, 대중문학연구회 편,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139-164쪽; 이숙, 『문운성의 『완전사회』(1967) 연구: 과학소설로서의 면모와 지배이데올로기 투영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 52, 2012, 225-253쪽; 복도훈, 『단 한 명의 남자와 모든 여자: 아마겟돈 이후의 유토피아와 섹슈얼리티』,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 345-373쪽; 손종업, 『문운성의 『완전사회』와 미래의 건축술』, 『어문론집』 60, 2014, 239-263쪽.

4) 임태훈 『1960년대 남한 사회의 SF적 상상력: 재앙부조, 완전사회, 학생과학』, 『우애의 미디어로지』, 갈무리, 2012, 239-273쪽; 조계숙, 『국가 이데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

품들에 관한 연구들<sup>5)</sup>,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 연구들<sup>6)</sup>이 있다.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은 거의 연구되지 않다가 김이구가 2013년 현대문학에서 『한낙원 과학소설 선집』을 펴내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소년』(『연합신문』, 1959)을 최초 창작 과학소설로 보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었다.<sup>7)</sup> 그러나 ‘본격’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논자들은 한낙원의 작품을 아동문학이라 하여 배제시키고 여전히 문운성의 『완전사회』부터 과학소설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낙원을 발굴한 김이구 역시 한낙원의 과학소설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sup>8)</sup> 김지영은 과학소설이란 장르의 특성으로 ‘청소년 독자 지향성’을 꼽기도 했다.<sup>9)</sup> 그는 또한 『한국과학소설(SF)전집』(해동출판사, 1975)을 청소년 과학소설로 분류하고 논의를 개진하기도 했다.<sup>10)</sup> 그러나 『한국과학소설(SF)전집』에 실린 작품을 청소년 과학소설로 분류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본 논문은 왜 유독 국내 과학소설 분야에서 성인문학과 아동문학의 이분법적 잣대로 인해 과학

학소설 『학생과학』지 수록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2014, 415-439쪽.

- 5) 김지영, 「1960~19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35집, 2013, 125-149쪽.
- 6) 박상준, 「21세기에 재조명되는 한국 과학소설의 선구자, 『창작과 비평』 2013 가을호, 584-587쪽; 모희준, 「한낙원의 과학소설에 나타나는 냉전체제 하 국가 간 갈등 양상-전후 한국 과학소설에 반영된 재편된 국가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0집, 2014, 223-248쪽; 김이구, 「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창비어린이』 3-2, 2005, 156-171쪽; 최정원, 「한국 SF 및 판타지 동화에 나타난 아동상 소고(小考), 『한국 아동문학 연구』 14, 2008, 173-202쪽.
- 7) 김이구, 「한국 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창작과 비평』 2005 여름호.
- 8) 김이구, 「한국 과학소설의 개척자 한낙원, 『한낙원 과학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3, 543-598쪽.
- 9) 김지영, 「한국 과학소설의 장르소설적 특징에 대한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32집, 2013, 375-397쪽.
- 10) 김지영, 「1960~19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35집, 2013, 125-149쪽.

소설 연구가 절름발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특이한 것은 논자들이 본격 과학소설로 평가하는 문운성의 『완전사회』<sup>11)</sup>는 『주간한국』의 ‘추리소설 현상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리소설’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고 ‘과학소설’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내용이나 소재도 ‘과학소설’에 해당한다. 비단 문운성의 『완전사회』뿐만 아니라 성인대상의 잡지에서 ‘과학소설’이란 표제를 달고 창작된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표적 대중잡지인 『명랑』에서 초능력자 이야기를 다룬 SF 『검은 천사』(1960.9)도 ‘추리소설’이란 표제를 달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과학소설’이란 장르 표제를 다른 잡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학원』과 같은 청소년 대상의 잡지에서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추리소설보다 과학소설의 비중이 더 커질 정도로 눈에 띄게 실려 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잡지가 아닌 성인 대상의 잡지에서는 왜 과학소설에 ‘과학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과학소설이 국내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문학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과학소설이 어린이·청소년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한 연유가 ‘공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과학소설을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지칭하는 순간, 과학소설이 다루는 세계가 터무니없고 황당한 어린이들의 놀이터라고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본 논문은 당대 과학소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과학소설 작가들은 ‘공상과학소설’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어떤 과학소설들을 창작했는지를 들여다 볼

11) 홍사단 출판부에서 1985년 『여인공화국』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제목에 ‘과학소설’ 냄새를 풍기지 않으며, 표지에 ‘장편소설’이라고 달려 있다. 다만 표지를 넘기면 속지에 ‘공상과학 추리소설’이라고 달려 있다. 흥미로운 것은 표지에 는 장르문학이 아니라 ‘장편소설’이라고 달려 있다는 점이다.

것이다.

과학소설사는 어느 시대에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과학소설이 발달했고, 어느 시대에는 펄프 잡지에 가볍게 쓴 과학소설이 대량으로 팔리기도 했다<sup>12)</sup> 등으로 각 시기에 어떤 유형의 과학소설이 발달했는지, 어떤 작가가 그 시대를 대표했는지 등을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1965년 창간되어 새로운 과학용어의 도입과 과학기사, 과학소설의 주요 지면이었던 『학생과학』을 중심으로 국내 과학소설의 경향을 짚어보기로 한다. 당대 과학소설의 소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과학기사와 국내 과학소설 경향 사이의 간극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과학』에 실린 과학기사에 주목했음을 밝혀 둔다. ‘우주시대’와 국내 과학소설 혹은 과학교육의 괴리는 없는지, ‘공상’을 거부한 과학소설은 어떤 양상을 띠었는지 등을 살펴보면, 그 시대 과학소설 작가들이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잡지에서밖에 지면을 확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린이·청소년 문학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960~1970년대 과학소설 작가들이 처한 딜레마는 결국 국내 과학소설의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학생과학』에 과학소설을 실은 작가들 대부분이 SF 작가 클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SF 작가 클럽의 작품 중에 『아이디어 회관 SF 전집』<sup>13)</sup>으로 간행된 작품들도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김학수의 『텔레파시의 비밀』이 ‘텔레파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목에 내세웠기 때문에 포함시켰음을 밝혀 둔다.

12) Jesse G. Cunningham, *Science Fiction*, San Diego, CA: Greenhaven Press, 2002.

13) 후에 아이디어 회관에서 『SF 세계명작』의 한국편으로 해동출판사에서 간행했던 SF 작가 클럽의 작품들을 똑같이 넣어 재간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디어 회관에서 간행된 『SF 세계명작 한국편』을 텍스트로 했음을 밝힌다.

## 2. 『학생과학』의 과학용어와 기술로써의 과학

### 2-1. 『학생과학』을 통한 새로운 과학용어의 도입

새로운 과학은 국내에서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공상’의 세계에 다름 아니었다. 예로부터 처음 도입되는 ‘과학’은 서양에서도 이질적이거나 사악한 이단이라 하여 금기시 했다.<sup>14)</sup> 1960~1970년대는 과학교육을 장려하고 우주과학시대를 열었던 만큼 새로운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특히 이공계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과학’을 무조건 맹신하고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과학소설의 유입과정만큼이나 새롭고 낯선 과학 용어들은 한 차례씩 검증과정을 거치듯 대중의 못매를 맞았다. 대중적으로 전파되어 널리 알려진 UFO, 텔레파시, 노이로제, 치료법의 일종으로 쓰이는 최면과 같은 용어들이 처음 도입될 때 대중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대중의 검증과정이란 낯설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경계태세로 주로 의심, 불신, 무조건적인 반감과 같은 반응으로 돌출된다. 1960년대 우주과학시대에도 국내에서 미신이나 주술이라 하여 가장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은 바로 인간의 ‘뇌’에 관한 인지영역이다.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두뇌만큼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도 두뇌가 장악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양립하고 있었다.<sup>15)</sup> UFO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신비의 물체 비행접시는?」(윤실, 1967년 5월)이라 하여 호기심을 품었다가도 ‘괴물체’라 하여 경계심을 품기도 하는 등 이중

14) 고장원, 『SF의 법칙』, 살림, 2012. 「낯설과 인식」장 부분 참고.

15) 신장재, 「가장 복잡한 기계인 인간의 두뇌」, 『학생과학』, 1966.6, 44-58쪽; 이병훈, 「인간과 기계」, 『학생과학』, 1966.6, 59-61쪽.

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학생과학』은 텔레파시, 초능력, 초인, 뇌파, 전자파, 자력, 노이로제, 최면 등과 같은 당시 낯설고 새로운 과학용어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초인을 만드는 기계』(1966년 4월), 『수수께끼의 초능력』(1966년 9월), 『전파는 인체에 해로운가』(1967년 5월), 『전자파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한다』(1967년 7월) 등 새로운 과학용어나 당시 이슈화된 쟁점을 빠르게 신는다. 성균관대 생물학 조교 조동현의 『전자파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글을 직접 보고, 듣고, 이야기하지 않고서도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는 초감각적(超感覺的) 지각작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두뇌가 전파를 발생하고 전자파를 수신할 수 있다는 학설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학생과학』에서 1960년대 새롭게 대두되어 부각된 과학용어는 바로 초능력, 초감각적 인지작용, 텔레파시, 최면과 같은 두뇌와 관련된 뇌(신경)과학 분야의 용어들이다.

『학생과학』창간호(1965년 11월)부터 연재된 첫 과학소설 『크로마농인의 비밀을 밝혀라』에서부터 최면술이라든가, 전자 두뇌(電子頭腦), 공간정(空間艇) 등과 같은 최첨단 과학 용어들이 대거 등장한다. 미지의 우주인에게 납치되어 가는 김운삼과 홍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특수 장치를 통하여 말을 걸어 오는 크로마농인에게 “당신은 생물이오? 전자 두뇌와 같은 기계요?”하고 묻는다. 『학생과학』1966년 3월에는 O. E. 해밀턴의 과학중편 『육체환원기』가 실리는데, 머리 속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두뇌수색기’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두뇌수색기(頭腦搜索機). 즉 머리 속의 지식을 싫건 좋건 간에 끄집어내는 기계요. 다만 나는 그다지 쓰고 싶지가 않소. 이 기계에 질리면 십중 팔구는 바보가 돼버린단 말씀이야.” (『육체환원기』, 『학생과학』, 1966.3, 54쪽)

“(……) 그 때, 고향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주사를 맞고 텔레파시(精神感應力)

해석(解釋)을 당한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 있었으니까 **신경과에서 텔레파시 해석**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어요. **텔레파시에 걸리면**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는 기억의 곡절이 자동적으로 전기 회로에 의해 기록되거든요. 성하룡씨의 식물 자력선 연구에 관한 **대뇌의 기억이 텔레파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누설되거나 않았을까?** 저는 공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광운, 『관계탐을 폭파하라』, 99~100쪽)

“윈스턴 처칠의 2차 대전 회고록이니, **무슨 미신 책과 같은 텔레파시니, 독심술**이니,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니……” (김학수, 『우주 조난』, 178쪽)<sup>16)</sup>

텔레파시는 ‘초능력’ 혹은 ‘괴력’으로 인식되었는데, 대중 잡지에서도 텔레파시(초능력)를 사용하는 인간을 다룬 소재를 볼 수 있다. 텔레파시가 과학소설의 소재로 차용된 것은 일본 과학소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 과학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쿠시마 마사미의 『악마 나라에서 온 소녀』에서 홍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공간을 이동하는 텔레포테이션(정신감응이동)이라든가 마음먹은 대로 떨어져 있는 물체를 조종하는, 이를테면 인형이나 자동차, 사람 등을 마음대로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거나 하는 등의 염동력(정신 동력), 혹은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아차리고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소녀이다. 이 능력을 ‘텔레파시’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우주과학 시대가 열리고 첨단기술로 선진국의 대열에 서고자 했던 1960~1970년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텔레파시’는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텔레파시로 인한 인간이 탄생할 경우, 현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거나 초능력자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하여 뇌(정신)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텔레파시(초능력)에 대한 공포는 노이로제 치료로 들어온 서양의 정신의학(서양 과학)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게 한다. 1960~1970년대 정부 차

16) 김학수, 『텔레파시의 비밀』(SF 세계명작 한국편 54), 아이디어회관, 1978.

원에서 적극적으로 '과학' 교육을 장려하고 진보 이데올로기를 내세웠지만, 국내에서 수용된 과학은 기술적인 것이었다. 정신과학이라든가 신경과학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인간의 정신(사고)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양과학보다 동양의 한의학이 우세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신이상자에게 허약해서 귀신이 들린 것이라 하여 기를 보해주는 한약이 아니라 뇌구조를 파헤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정신의학'은 마치 뇌를 조종당하는 것 같은, 최면에 걸려 나의 모든 정보를 빼내는 것 같은 반감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의 정신의학 분야의 의사들이 자신을 조종하거나 억압한다고 느낀 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주술을 부리는 악마와 심리적으로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텔레파시, 최면, 노이로제 치료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된 '미신'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로 인식되었다. 그러면서도 방사능에 오염된 환자의 회복에서도 의지와 신념에 기댄다거나 뇌파 증폭기를 노리는 사사키와의 전쟁에서도 기적을 바라기도 한다. 또한 감정 분열이 일어나면 감정이 이성을 누르고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우주 사회에서는 감정적이어서 안 된다'(『텔레파시의 비밀』)라고 선언한다. 동양의 한의학을 내세우다가도 서양의 과학이 발달한 배경에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오래된 콤플렉스를 드러내기도 한다. 1960~1970년대 과학소설은 서양의 신경의학과 동양의 한의학, 서양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의지), 과학과 미신 사이에서 끊임 없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2-2. 기술로서의 과학: 과학소설의 직업 세분화와 중등 실업교육

『학생과학』이 창간된 1965년은 정부에서 우주시대로 발돋움하기 위해 과학교육이 강조되고 과학교육진흥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었다.<sup>17)</sup> 1957년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미국이 과학교육진흥으로 소련과학계에 대비할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연방정부의 원조를 강렬히 요구하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국내는 말로는 우주과학시대의 과학교육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업교육’이나 ‘기술교육’에 주력하고 있었다. 1966년 5월 『학생과학』에는 과학세계사에서 발행한 전상운의 『한국과학기술사』의 광고가 크게 실려 있다(63쪽). 흥미로운 것은 『한국과학기술사』라는 책제목이다. 과학발달사라든가 과학의 역사가 아니라, ‘과학기술사’라는 책 제목은 ‘기술’로서의 과학을 강조하고 있는 당대의 국내 과학의 수용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963년부터 시행된 2차 교육과정에는 교육 목표가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경험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된다. 제 2차 교육과정 심의위원은 인격, 체육, 실업, 기술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실업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이 강조된다.<sup>18)</sup> 기술교육의 강조는 실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것은 이공계에서 다양한 전공의 세분화 양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사』의 목차에 기술된 장들을 살펴보면, 천문학, 기상학, 물리학과 물리 기술, 화학과 응용 화학, 지리

17) 『科學(과학) 교육, 宇宙時代(우주시대)에의 발돋움』, 『경향신문』, 1965.4.9, 3면.

18) 『中等學校教育(중고등학교교육)에 대한 몇 가지 提議(제의)』, 『동아일보』, 1962.1.22, 1면; 『경향신문』, 1962.10.2, 3면. “본사는 이번 문교부 주최 전국 공업고등학교 실업교사 재교육 강습회에서 3개월 동안 기쁨바지를 입고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과 함께 『실업교육진흥』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1960년대 2차 교육과정에서 실업, 기술, 직업 교육의 강조는 정부의 산업진흥사업과 함께 기술자 양성에 목적을 둔 정책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과 지도로 나뉘어 있다.<sup>19)</sup>

1960~1970년대 국내 창작 과학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은 각 인물의 전공과목과 그에 따른 직업군이 소개된다는 것이다. 서광운을 비롯한 『SF 세계명작』의 과학소설에는 마치 대학의 이공계 학과와 전공을 홍보라도 하듯, 다양하게 배치하고 있다. 특히 서광운의 과학소설은 마치 대학의 학과와 전공을 하나하나 진단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북극성의 증언』에서는 식량개량 연구에 몰두하는 ‘농학’을, 『관제탑을 폭파하라』에서는 태풍의 진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상학’을, 『4차원의 전쟁』에서는 외딴 우주인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하는 ‘인류학’을, 『우주합대의 최후』에서도 우주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주 사회학’을 기본적인 바탕 소재로 깔아 놓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사전개 곳곳에서 하나의 임무와 연구를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협력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을 이미 1970년대에 예측한 것이다. 『우주합대의 최후』에서 우주합대에 탑승한 자들은 전자공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화학, 농학, 심리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전공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작품 곳곳에 이들이 전공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가령, 전자물리학을 전공한 이상호는 항성들의 위치를 제어 비행 궤도를 수정하는 구실을 맡고 있으며, 생물학을 전공한 황영숙은 목성에서 발견한 자력선 박테리아의 존재를 발견한다. 그러나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도 전공이 수식어로 과장되어 따라다니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역사학을 전공한 신온철은 우비구니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나날

19) 기상학과 지리학이 과학 분야의 세분화 과정에서 눈에 띈다. 기상학은 1960~1970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과제로 떠오른 분야였고(바로 앞 절에서 기상 관련 기사와 과학소설 소재로써의 활용된 예들을 참고할 것), 지리학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개척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계속되었다.”라든가, 흠을 만져 보고 “생물학을 전공한 황영숙 양이 상기된 얼굴로 기쁜 듯이 외쳤다.”라든가 “지질학을 전공한 까닭에 지하의 비밀을 일반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 통치자들의 심정엔 밝았던 것이다.” 등 별 연관이 없는 것에도 꼭 전공을 붙여서 이름을 언급한다. 이외에도 수학을 전공한 이광호, 천문학을 전공한 문창수 등 이름 앞에 늘 전공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닌다.

『우주 함대의 최후』에서 가장 인상깊은 장면 중 하나는 우주 함대 대원들이 RS6호 별(노고지리 별)에 떨어져서 개미 모양의 세미족에게 잡혀 지구 도시를 건설하도록 명령받은 것이다. 지구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 과학이 아닌 예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과학과 예술의 교류를 제안하고 있다. 아버지가 문화재 관리위원인 황영숙이 고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하며 내부 장식과 조각을 설계하기 시작하자, “역시 어릴 적부터 보아 두어야 될 것들은 보아두어야겠어. 황영숙 대원이 은하계에서 엉뚱한 실력을 발휘할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 과학과 예술이 서로 답을 쌓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지구의 문명이 역시 낮은 것 같아.”<sup>20)</sup>(117쪽)라고 다른 대원이 발언한다. 석굴암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과학자들이 뛰어난 예술가의 솜씨를 따라갈 수 있겠냐고 자문하는 것과 그것만은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단언하는 대원들의 태도에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예술의 영역은 남아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늘어나는 시기에 과학소설에서 대학의 전공이나 학과를 빈번하게 가져오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색하도록 한다. 더불어 우

20) 서광운, 『우주함대의 최후』(SF 세계명작 51), 아이디어회관, 1978.

주로 향하는 미래의 꿈은 어떤 한 전공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충실히 임무를 완수할 때 달성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치 3차 산업 사회의 분업화를 말해 주고 있는 인상을 심어 준다. 과학소설에서 각 분야의 융합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 계몽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학』과학소설에서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강조는 실업 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의 발달로 인한 전공 세분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실업과 기술교육의 강조와 공업고등학교의 발달은 『학생과학』에서 잘 드러난다. 『학생과학』1966년 12월호(138~139쪽)에는 ‘생산교육을 장려하는’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 전문학교의 과학반이 소개된다. 전파를 이용한 전기과, 동력을 자랑하는 기계과, 생산을 자랑하는 공업화학과, 풍부한 표품을 가진 광산과, 전국 전문학교에서 단 하나인 야금과, 특수한 미술연구실을 가진 건축과 등으로 상세하고 세분화된 전공은 과학소설에서 다양한 직업 전공 분야와 겹쳐진다. 1967년 6월호에도 효명실업 중·고교 과학반이 소개되고 있으며, 더불어 기계제도공, 편물공, 선반공, 주조공 등의 전국 기능 경기대회 개최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다. 『학생과학』은 계속해서 각 호의 마지막 부분에 각 학교의 과학반을 자랑하거나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때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공업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인 것이 특징적이다. ‘기술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 선택을 장려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과학교육의 실질 목적이었던 셈이다. 과학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주과학시대라고 불리지만 국내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우주과학은 먼 나라 이야기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과학교육은 실업교육, 기술교육, 그

에 따른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소설에서 대학의 학과, 전공뿐만 아니라, 빔 프로젝터나 마이크로 필름 같은 당시 대학 강의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술을 과학용어로 들여오므로써, 청소년의 미래 직업이나 진로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생과학』에서 종종 광고하고 있는 라디오 기술자 양성 과정이라든가 기능대회, 실업교육 강조는 국내에서 과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에게 실현불가능하고 먼 우주과학보다 『학생과학』에서 실질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과학은 생활로서의 과학,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계, 전자) 기술과 관련된 분야이다. 더불어 바람직한 미래 청소년상을 통해 불량 학생을 선도하여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표상이 담겨 있었다.

### 3. 공상에 대한 거부로써의 ‘과학’소설

#### 3-1. 공상과학소설에 대한 인식과 지나친 과학용어 설명

복거일은 우리 사회에서 과학소설이 황무지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과학소설이 문학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열등한 소설양식이라는 편견을 들었다. 그리고 그 편견이 뿌리내리게 한 데는 과학소설을 ‘공상과학소설’로 부르는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up>21)</sup> 한용환의 『소설학 사전』에는 과학소설이란 용어

21) 복거일, 『과학소설의 세계』, 박상준 엮음, 『멋진 신세계』, 현대정보문화사, 1992, 12-13쪽 참조.

는 없다. 대신 Science Fiction에 대한 번역어로 공상과학소설을 택하고 있다. 그는 공상과학소설을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실현불가능한 허구적 세계**를 이야기 형식에 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설의 유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적 세계’라고 지칭한 부분이다. 공상과학소설은 문학이 현실의 반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계’ 혹은 ‘황당무계한 세계’로 통상 간주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회관에서 SF 세계명작을 낼 때도 SF를 공상과학소설이라 번역한다. 다른 SF 전집에서도 해설에서 과학소설보다 공상과학소설이란 용어를 더 우세하게 사용하고 있다. 해리 해리슨의 『우주선 의사』(진영출판사, 1981)를 번역한 이홍섭<sup>22)</sup>은 ‘공상과학’이란 용어를 SF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하며, 작가 설명에서 해리 해리슨이 공상과학 신문도 편집하고 공상과학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 설명에서 “이 작품은 **단순한 공상과학소설**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밀도 높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며, 일반 문학 작품과 공상과학소설을 분리해 놓고 있으며, 공상과학소설에 대해 ‘단순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공상과학소설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파란만장한 활극과는 달리, 미래의 것이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이홍섭의 견해에는 그동안의 공상과학소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SF가 아니면 상상도 못할 공상의 이야기’, ‘끝나고 나면 허무한 공상’ 등으로 표현되어 ‘공상’은 거부감이 있는 단어로 받아들여졌다.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과학소설

22) 한국 SF 작가 클럽 회원이며, 1981년 진영출판사에서 웅달샘 SF 전집을 펴내던 당시 『학생과학』 가이드 포스트 편집부장.

이라고 생각했던 당대 인식에서 SF 작가들은 공상이 아닌 과학소설을 쓰기 위해 장황한 과학이론을 마치 강의처럼 설명해야 했다.

**공상과학소설의 내용이 선장의 머리에 열린 떠오른다.**

(김학수, 『우주 조난』, 169쪽)

우주선에 식물을 재배하여 탄소 동화 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산소 제조 방법을 고안하여 특허권을 얻는 것, 제 3의 우주선이 나타나는 것. - 그러나 이런 모든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소설 속에서의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김학수, 『우주 조난』, 170쪽)

“도대체 **과학이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재현성(再現性)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종류의 과학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 아냐?” “태진아, 네 말은 지구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틀림없는 말이야. 그러나 전연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야. 벌써 20세기 후반에 와서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피부에는 60킬로 싸이클이면 공간으로 복사될 수 있는 전자 에네르기야. 하기가 이 60킬로싸이클이 인체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뇌의 명령이 이 주파수 속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 즉 우리의 사고작용(思考作用)이 고주파에 실려 공간으로 복사된다고 생각해 봐. 참 재밌잖아. 사람들 중에 극히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이 60킬로 싸이클을 수신할 수 있을지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김학수, 『텔레파시의 비밀』, 97~98쪽)

서광운, 김학수를 비롯한 SF 작가 클럽의 과학소설에서 텔레파시, 노이로제, 신경과민과 같은 용어가 빈번히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이나 정신이상으로 취급하거나 작가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현실세계의 질서의 경계에서 의심을 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상과학소설”에서의 이야기이고, ‘미신’과 같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우주 함대의 최후』에서 우주물리학 전공 이만석 박사는 우주사회학 강의에 앞서 “**우주사회학 강의! 아무래도 실감은 갖들이지 않**

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일지라도 **집단적으로 믿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12쪽, 강조는 필자)라고 자문한다. 이처럼 SF 작가 클럽의 과학소설에서 우주과학의 내용은 생생하게 받아들여지기보다 집단적인 미신이나 주술에 걸린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 과학소설 독자들이 생소한 용어의 나열로 어렵다고 반응한 것은, 과학소설에 당대의 뉴스나 신문 기사, 이슈화된 실제 과학 이론이나 논쟁을 가져와서 강의 형식의 설명글로 실었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 이론이나 논쟁을 가져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과학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과학소설을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치부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작가들의 나름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다. 1960~1970년대 ‘공상’은 주로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실현 불가능한’, ‘단순한’ 등의 의미로 쓰였다.<sup>23)</sup> 과학소설 작가들의 ‘공상’이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은 과학소설의 세계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공상으로 그려져 과학소설이 마치 아동문학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연구자들도 ‘공상’이란 용어 대신 ‘환상’이란 단어를 택하기도 한다.<sup>24)</sup>

23) 1960~1970년대 ‘공상’이란 단어의 뉘앙스는 과학소설에서 부정적으로 쓰였으며, 작가들은 과학소설의 세계가 공상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반면 본격소설 연구자들은 공상의 세계를 다루는 아동 대상의 문학으로 과학소설을 하찮게 여기거나 폄하하기도 했다.

24) 한금윤, 「과학소설의 환상성과 과학적 상상력」, 『현대소설연구』 12, 2000, 89-110쪽. 한금윤은 다른 과학소설 연구자들보다 앞선 꽤 이른 시기에 ‘공상과학소설’이란 용어에 대해 고민한다. 그 역시 지금까지 ‘공상’이란 용어 때문에 과학소설이 제대로 취급받지 못했다고 하며, ‘공상’이란 용어 대신 환상소설의 ‘환상’과 과학소설의 ‘환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지영, 「한국 과학소설의 환상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69집, 2015, 191-222쪽. 김지영은 ‘상상’, ‘공상’, ‘환상’의 용어를 정의하며, 오영민의 과학소설을 ‘합리적 환상성’의 범주에 넣는다. 그는 과학소설의 수식어인 ‘공상’을 비판

### 3-2. 현실성을 내세운 과학소설의 소재: 기상변화와 식량문제

공상의 세계 대신 『학생과학』에서 과학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내세우는 것은 기상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문제이다.<sup>25)</sup> 『기근에 대비한 새로운 식품들』(1967년 4월)에서 식량품종의 개발을 다루는가 하면, 『세계인구와 식량문제』(1969년 4월)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라 심각한 기아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맬서스의 예언을 언급한다. “하루에 콩알만한 환약 한 개만 먹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동안 달에 주사 한 번 맞고 사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따위의 공상은 현재로서는 아득한 이야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1969년 4월, 61쪽)

1960~1970년대 『학생과학』은 우주과학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알약 하나로 먹고 사는 이미지를 공상으로 치부하며,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고민하고자 한다. 1960~1970년대 국내 과학소설과 독자들은 ‘공상’을 거부하고 실현가능한 현실을 택했다. 『학생과학』과학소설은 새로운 식량품종을 개발하거나 기상변화에 대처할 현실적인 가설(IF)의 세계로 제시한다.

『북극성의 증언』(1965년 12월부터 연재)은 996 밀리바 태풍 15호가 몰려오는 날, 태풍 경보가 발동하는 ‘기상특보’로 시작한다. 서광운은 다른 과학소설보다 유난히 ‘농학’, 즉 ‘식물개량’과 같은 인류의 개량 식량에 관심이 많았다. 인구 증가에 따른 우주의 식물개량 연구가 『북극성의 증언』에서 우주 개발의 목표였다. 우장춘의 ‘씨 없는 수박’에 대한 언급은 당시 국내의 과학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sup>26)</sup> ‘자력 혁명! 자력

하는 것을 비판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오영민의 과학소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드러내기 위해 ‘공상’이란 단어 대신 ‘환상’을 선택한다.

25) 김수권, 『기상과 천기도』, 『학생과학』, 1966.9, 78-86쪽.

26) 서광운과 우장춘이 친분이 있었다는 근거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땅의 사람

선 연구소에서 무한 동력을 발견! 과일의 다면체 재배도 대성공!에서 드러나듯, 『북극성의 증언』은 식물의 자력을 이용한 식량 품종의 개발이 주요 소재이다.

“원예부로서 토마토 재배를 위해 자석을 뿌리에 함께 심어 줌으로써 재래종보다 5배의 다수확을 올렸고 수박은 과일이 익기 시작한 일정한 기간 자력선을 보강함으로써 일 년 내내 맛이 변하지 않는 특수 **품종을 개량**해 냈습니다. 당부가 결론을 얻으려는 것은 일년생 식물을 그 특징을 변경함이 없이 다년생 식물로 성 전환을 시키려는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나 귤의 경우도 재래식 방법은 종이로 과일을 싸서 보호하는 방식인데, 이를 지양하여 100분의 1밀리의 플라스틱 막을 과일 표면에 액체로서 살포하면 자력선과의 균형 하에서 반드시 구형이 아닌 4면체 또는 3면체 등의 이른바 임의의 다면체 재배에 착수했습니다.”(7~8쪽)

“만일 **자력선에 의해서 식물이 생장이 5배 늘어날 수 있다면**, 그 나무의 잎사귀의 세포들은 그만큼 빛의 합성 작용을 활발히 해야될 겁니다. 우리는 자력선 연구소의 잎의 세포 구조를 분석해서 염색체를 분류해야겠습니다. 국립 연구소의 권위와 전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10여 년 전에 **미국이 월남의 게릴라전 때 사용한** 적이 있는 ‘호지돌’과 인(P) 화합물을 선정된 잎에 붙여 놓았다. 이 약은 **낙엽제** 또는 **고초제**로 알려진 것이다. 화학반은 그림으로써 수분이 없어질 때의 인 형질의 상태를 우선 파악해 보는 것이었다. / 그들은 또한 수박의 염색체가 2배체와 4배체를 교배시켜서 **씨 없는 수박**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1주일 동안에 상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sup>27)</sup>(17쪽)

그의 다른 과학소설 『4차원의 전쟁』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들』 2권(뿌리깊은 나무, 1980)에 『한국일보 과학부장이 쓴 우장춘』이라는 글을 보면, 남다른 인연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은 명성왕후 시해 사건에 가담해 일본으로 도망해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서광운의 글은 우범선이 마치 암살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자객 고영근에게 암살당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서광운은 『해류 시그마의 비밀』에서도 우장춘의 식량 개량을 언급하며, 생선 양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소재로 등장시킨다.

27) 서광운, 『북극성의 증언』(SF 세계명작 한국편 60), 아이디어회관, 1978(1965~1966년 『학생과학』연재).

에 대한 불길한 의혹으로 시작한다. 독자는 이후의 서사전개가 도대체 왜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흐를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의 소재목이 〈빙하 시대가 오는가?〉로 되어 있어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 전에 혹독한 빙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여러 논쟁 끝에 서광운은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 전혀 다른 추측을 내어 놓는다.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가 아니라 우주인이 지구에 광선을 쏘아 대고 있어서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이후의 서사전개는 해수면의 수위 상승의 원인과는 전혀 무관한 지구에 내습한 외행 우주인의 정체에 관한 것으로 전환된다. ‘세계의 바닷물은 나날이 불어가고 게다가 정체불명의 우주인이 금성을 점령했다’(18쪽)는 악몽은 곧 바닷물이 불어나는 원인이 지금까지 별인 여러 학설이나 논쟁과는 무관하게 우주인 때문이라고 급선회한다. 서광운은 늘 터무니없는 어설피고 이질적인 줄거리 결합으로 독자로 하여금 황당함을 자아낸다. 그러나 그런 황당함 속에는 과학의 여러 학설은 기본적으로 ‘가설’이고 이에 ‘논쟁’을 거쳐서 해결책이나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과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북극성의 증언』은 도입부에 태풍으로부터 식물 자력선 연구 아이다어를 얻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식물 자력선 연구를 설명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광채’를 발견하고 당시에 유행어처럼 떠돌던 UFO(비행접시)의 환상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 놓는다. “저 유지 같은 이상야릇한 괴물체”, “혹 폭발물이 아닌가”<sup>28)</sup>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다가

28) 이상한 물체를 폭발물이나 지뢰로 의심하는 것은 전쟁을 겪은 후유증으로 다른 과학소설에서도 종종 엿볼 수 있다. 가령, 한낙원의 『별들 최후의 날』(『한낙원 과학소설선집』, 현대문학, 2013)에서도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두 아이들은 처음에 지뢰인가 하고 의심한다.

말미잘처럼 촉수를 가진 괴물로 묘사되다 우주 생물로 결론이 난다. 우주 생물에 대한 당대 반응은 “저 놈이 느티나무의 생기를 빨아먹는 것으로 보아”, “마치 말미잘이 **둔갑**한 것 같구나.” 등으로 생기를 빨아먹고 둔갑하는 묘술을 쓰는 전설의 구미호를 대하는 듯하다. 이러한 반응은 낯선 과학이 처음 도입될 때 악마라 하여 경계하고 금기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황당하다. 금강여대 3학년인 한수 누이동생은 “소금을 뿌려보면 어때요? 보통 생선을 절일 때처럼 소금으로 처리해 보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하자, 이 황당한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만일 저 괴물의 몸 속에 소립자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다면 소금 속의 나트륨 핵이 반응하여 당장에 폭발할 염려도 없지 않”다며 전자파 송수신이 거론되다 수소파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은다. 서광운의 과학소설에는 이처럼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해 여러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설득하는 논쟁 과정이 포함된다. ‘과학 논쟁’이야말로 서광운 SF의 핵심이다. 그래서 엉뚱하고 황당한 아이디어라도 받아들여지거나 채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때로 황당하고 엉뚱한 서사로 전개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설 중에서 한 안을 임의로(무작위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극성의 증언』은 이 우주 생물과의 통신을 시도하기 위한 수소 센터 파장이 거론된다.<sup>29)</sup> 수소 센터 파장과 같은 용어는 당시의 실제

29)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고안한 SETI(외계문명탐사 계획)는 먼 우주에서 오는 전파신호를 추적하여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으려는 프로젝트이다. 멀리 떨어진 외계인과의 통신 역시 ‘텔레파시’의 일종이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설’이고 ‘공상’이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 때문에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프로젝트이다. 이 드레이크가 고안한 프로젝트는 ‘과학’은 ‘공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설을 제안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 논쟁을 벌이는 과정 자체가 과학이 답이 따 정해져 있는

과학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과학소설이 공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 논쟁을 벌이거나 실제 과학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서광운의 『우주함대의 최후』가 연재되는 가운데 독자로부터 온 편지 중에는 과학소설이 너무 공상적으로 흐르면 재미있게 읽다가도 막상 끝나면 매우 허무한 것을 느낀다<sup>30)</sup>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과학』 독자들 역시 과학소설을 대할 때 ‘공상적’이거나 ‘허무한’ 것 보다는 지적이거나 계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과학소설 장르의 발달과 우주시대와의 괴리

『학원』과 같은 매체에서 공상과학소설, 과학소설, SF, 모험과학소설, 과학모험소설 등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학』은 창간호부터 줄곧 ‘과학소설’이란 용어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신 우주과학소설, 해양과학소설 등 세부 장르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다. 우주과학시대라고 지칭되는 만큼 우주과학소설이 가장 많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광운은 가설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공상을 거부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독자에게 과연 과학소설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고 혼란을 준다.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혹은 한국 과학소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할 때, 서광운의 답변은 무엇일지가 궁금하다.

- 30) 중동고등학교 1학년 박경로, 「과학소설을 읽고 나서-독자로부터 온 편지」, 『학생과학』, 1969.1, 161쪽. 『우주함대의 최후』 1회가 끝나는 지면에 과학소설 독자편지를 실고 있다. 독자편지를 보면, 중동고등학교 1학년, 경기여자고등학교 1학년 등 『학생과학』 과학소설의 독자가 고등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잡지를 표방한 『학원』이 중학생이 주요 독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학생과학』의 연령층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실려 있으며, 동시기 『학원』과 같은 매체에서는 국내 창작 과학소설의 양상으로 잘 볼 수 없는, 서광운의 『해류 시그마의 비밀』을 비롯하여, 오영민의 『바다밑 대륙을 찾아서』, 『지저인 오리거』등의 해양과학소설이 연재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던 스파이소설의 양상이 과학소설이란 표제를 달고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시대라고 일컬어지고 대부분의 국내 과학소설 작가들이 우주과학소설을 썼던 시대에 『학생과학』의 세부 장르의 발달은 국내 과학소설의 인식이 어떠했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 4-1. 전쟁소설이 되어 버린 우주과학소설

『학생과학』에도 우주시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미소의 우주경쟁으로 인한 우주과학 기사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sup>31)</sup> 『드디어 달에 사뿐히 내려앉은 미국의 서베이어 1호』(1966년 7월), 『달 탐험을 실현해 줄 아폴로 계획』(1967년 5월 표지설명), 『아폴로 우주선은 달 정복 후 어떻게 지구로 돌아오나』(1969년 1월), 미국의 아폴로호가 달에 착륙하기도 전부터 아폴로 계획에 관한 기사를 실으면서 소련은 아직 못하고 있는 랑데부와 결합은 이미 완수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소련이 루나 5호 이래 네 번이나 실패를 하고나서 루나 9호로 간신히 달 착륙에 성공한 데 비해 미국은 서베이어 1호로 첫 번째에 보기 좋게 성공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에 『소련의 유인 우주비행은 가짜다』(1966년 10월, 28~36쪽)라며 소련의 루나 9호의 달 착륙이 연극이라는 로이드 맬런의 글을 9쪽이나 할애하여 대대적으로 신는다. 이는 미

31) 조계숙, 『국가이데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 『학생과학』지 수록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2014, 415-442쪽 참조. 특히, 425-426쪽 참조.

국 아폴로호의 달 착륙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주경쟁에서 미국을 우승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주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일까. 한국은 사실 우주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주 진출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주로 나아가는 장면이나 우주선을 타는 장면에서 자신 있게 한국인을 선두로 내세우지 않고 늘 미국과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과학소설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민영의 『화성호는 어디로』(『학생과학』, 1967.6~1968.4)와 같은 우주과학소설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비행선의 탑승일원으로 등장할 뿐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않고 한 일원으로 참가할 뿐인 우주과학은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공상’의 세계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종종 ‘공상’과학소설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과학적인 공상을 그리는 SF, 즉 공상과학소설에서는 여러 작가가 지구를 공격해 온 우주 생물 얘기를 쓰고 있”다거나, “우주를 무대로 하는 갖가지 공상과학소설은 지구 이외의 혹성이나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험이 그려져 있”다는 등<sup>32)</sup>으로 과학전집의 작품 해설에서 공상과학소설이란 용어를 가져온다. 우주 배경의 과학소설은 스페이스 오페라(우주 대활극)라고 불리며 미국의 싸구려 잡지에 연재되었기 때문에 과학소설 내에서도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할 때 보통 우주 과학소설을 지칭하며 더불어 실현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공상의 세계를 그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인식되었다. SF 작가 클럽의 회원들은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인식되는 우주 배경의 과학소설에서 ‘현실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실감나는 ‘베트남전’을 상기시키는 전

32) 인용문은 각각 전자는 『심해의 우주괴물』(아이디어회관, 1975), 후자는 『방향하는 도시 우주선』(진영출판사, 1981)에 대한 작품 해설에서 가져온 것이다.

쟁터를 활용한다. ‘베트남전’은 『학생과학』에서 자주 보이는 기사이다.

서광운의 『우주 함대의 최후』에서의 서로 다른 종족간의 전쟁과 지하 도시 건설은 국내 창작 우주과학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전쟁과 지하도시는 마치 국내 우주과학소설의 구조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주를 제국주의 시대의 땅따먹기처럼 개척해야 할 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sup>33)</sup>, 우주라는 공간은 미래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에 불과했다. 보통 우주라고 하면 당시 인류의 역사상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속한다. 따라서 우주과학소설은 미지의 세계인 우주 공간을 얼마나 매혹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는 데 반해, 국내 창작 우주과학소설의 우주 공간은 지하 병커를 연상케 한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탱크와 지프차가 다니고, 굴을 파서 지하기지를 형성하는 설정은 우주과학소설이 아니라 6·25나 베트남을 소재로 한 전쟁소설이라는 인상을 준다.

영똥하고 이질적인 원인으로 황당함을 자아내던 SF 작가 클럽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우주’로 넘어가면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증발해 버린다. 우주인과의 전쟁 장면도 마치 6·25를 연상시키는 듯한 폭탄, 지뢰, 땅굴기지와 같은 용어들뿐만 아니라 육탄전이나 탱크(그림에서 탱크로 보이는)까지 등장할 때는 그야말로 익숙한 육지 전쟁의 한 장면과 마주한다.

벼랑 꼭대기에 무사히 도착한다. 나와 스파이크 씨는 차 뒤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꺼내어 급히 오던 길로 도로 달려 내려간다. 적은 이제 벼랑길로 접어드는 참이다. 우리는 녹슨 올타리 쇠 하나를 빼버리고 **폭약** 2개를 묻었다. 이 정도면 지

33) 달에 착륙한 미국 아폴로 우주선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조기를 다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했던 것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주도 정복해야 할 땅이었기 때문이다.

름 2미터쯤의 함정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리라./ (……)/ 이 때,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들려온다. 뒤이어, **폭파** 찌꺼기가 비처럼 쏟아져서 **지프차**의 본닛을 두드린다. 다시 조용해진다. 우리는 벼랑 꼭대기로 다시 올라갔다. 길 가운데 커다란 웅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다. **탱크**라도 통과하지 못할 장애물이 생긴 것이다. 멀리 벼랑 중간쯤에 **장갑차**가 정지해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그들 중에는 팔짱을 끼고 올려다보고 있는 사사기도 알아볼 수 있다(김학수, 『텔레파시의 비밀』(SF 세계명작 한국편 54), 아이디어회관, 1978, 135~136쪽).

“터널에 **흙 포대**만 쌓아 놓으면 그만이겠오?”(137쪽), “핵융합 총처럼 보이는 길다란 **대포**를 **장갑차**에 장비하고 시내를 향해 천천히 들어온다.”(155쪽), “사사기가 탄 장갑차의 뚜껑이 열리면서 사사기가 뛰어 나온다. 손에는 번쩍이는 긴 일본도가 들려 있다.”(159쪽) 등과 같이 특히 전투 장면은 그동안의 전쟁 영화나 전쟁 소설에서 보아왔던 것과 익숙하다. 지프차가 등장하고, 새떼로 차 주위를 둘러싸서 운전사 앞을 가리는 등 첨단 과학기술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적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방어하는 전쟁을 연상시킨다. “전쟁 중에, 아내의 다정한 미소를 등 뒤에 받으며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집에 돌아 왔을 때 아내도 집도 무참히 폭격에 날아간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선장은 압력계를 쳐다보고 있다.”(166쪽)처럼 우주에서의 위기 상황도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 우리에게 우주는 실감나는 것이 아니었고, 몸소 겪은 전쟁이상의 공포를 던져 주는 상황은 없었던 것이다.

다른 부분들은 첨단과학인데, 유독 ‘우주’로 나아가서 묘사해야 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전보다 더 원시적이다. 추장, 무전기, 지프차, 다이어마이트, 땅굴과 같은 용어들의 사용 자체가 이전까지의 뇌파 증폭기, 텔레파시, 감마선 등과 같은 용어와 대립되며 마치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을 다시 보는 듯한 인상을 심어 준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우주=공상=비현실=실현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세계에 머물렀던 그들은 과학소설보다 ‘전쟁소설’이 훨씬 실감나고 외계인보다는 간첩을 경계하는 방첩소설이 더 긴장되고, 우주전쟁보다 베트남전이 더 생생했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실제로 월남전 관련 필자였던 최규섭은 『학생과학』 1967년 5월호에 「달탐험에 등장할 차량들」(66~70쪽)이라는 글을 쓴다. 그는 1966년 월남전 특집에서 「월남전에 적합한 나르는 짚」을 실었다. 그가 월남전의 지프차를 달 탐험의 차량과 접목시켰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이런 국내의 사정이 동반되어 우주과학소설에서 마치 월남전을 보는 것처럼 지프차가 등장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4-2. 시리진 대륙의 전설과 해양과학소설

과학소설에서 미지의 영역은 우주 이외에도 인간이 내려가 보지 못한 바다 밑 세계가 있다.<sup>35)</sup> 진영출판사에서 과학모험전집을 펴낼 때 추천사를 쓴 서광운은 SF의 종류로 무대를 우주로 설정한 작품과 미지의 세

34) 조규상, 「베트공의 기괴한 무기들」, 『학생과학』, 1966.9, 30-33쪽; 박명기, 「원자력 잠수함」, 『학생과학』, 1966.9, 34-35쪽; 최규섭, 「잃어버린 수폭회수 작전」, 『학생과학』, 1966.9, 38-45쪽; 네빌 브라운, 「국지전쟁에 쓰이는 무기는?」, 『학생과학』, 1966.9, 70-77쪽에 이어 『학생과학』 1966년 11월호에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월남전쟁」이라는 특집 하에 김재관의 「월남전의 현황과 그 장래」(30-33쪽), 편집부의 「월남의 산족의 생태」(34-37쪽), 조규상의 「월남전과 헬리콥터」(38-41쪽), 최규섭의 「월남전에 적합한 나르는 짚」(42-45쪽), 이광소의 「월남전에 활약하는 발명가·발명품」(46-49쪽)이 실려 있다. 1968년 1월호에는 popular science에서 발췌한 「월남전의 소총 M-16의 성능은?」(24-27쪽)이 실려 있다. 이처럼 월남전에 관한 기사는 『학생과학』에서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어서 월남인의 생태, 월남전의 무기(총 및 화학무기), 월남전의 지프차, 병커와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 육지전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우주 전쟁보다 육지전이 우리에게 훨씬 그리기가 수월하고 익숙했을 것이다.

35) 편집부, 「바다 밑의 광물자원」, 『학생과학』, 1967.7, 30-33쪽. 1967년 7월호 화보란에도 「바다 밑 탐험」이 실려 있다.

계인 바닷속으로 설정한 작품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sup>36)</sup> 그만큼 과학소설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우주와 바다는 양대 산맥이었다. 국내 창작 과학소설에서 우주보다는 해양을 배경으로 하는 과학소설은 ‘공상’보다 좀 더 ‘현실적인’ 소재였다고 볼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 띄우는 비행선보다 바다 밑의 잠수정이 ‘간첩’ 임무에 훨씬 와 닿았을 것이다. 단적으로 바다 밑 세계를 소재로 다룰 때는 미국의 잠수원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바다 밑의 세계가 훨씬 현실적이었음을 말해준다. 바다 밑 세계를 다룬 과학소설은 ‘잠수정’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적군 몰래 적군기지를 탐지하는 능력이 바다 밑 세계에서도 중요했던 것이다. 이 시기 과학발달의 핵심은 적군의 군사적 기밀이나 무기의 탐지가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은 과학의 발달이 국방력과 직결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우주과학보다는 해양과학은 정부가 주도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양성과 실업교육의 일환과도 맞물려 있어 『학생과학』독자들에게 현실감을 부여할 수 있었다.

바다 밑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잠수정 기술이 발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66년 7월호의 『학생과학』에 실린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바다 밑 연구」라는 글에는 우주와 바다를 정복해야 할 각기 다른 두 영역으로 대립시켜 놓고 있다. 1967년 1월호에도 「바다 깊이 숨어 버린 잠수함 탐색 작전」과 「가까워진 달나라 정복」을 나란히 게재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의 바다와 우주에서의 경쟁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소의 우주경쟁이 불붙어서 미국이 달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파이 영화 혹은 스파이

36) 진영출판사에서 1981년 웅달샘 소년소녀 SF 문학전집을 펴낼 때 SF 작가 클럽 회장 서광운이 추천사를 썼다. 1권 『방황하는 도시 우주선』에 실린 추천사 참고.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대 잠수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미국 해군의 해저 탐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람들도 있다.<sup>37)</sup>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바다 밑 연구』라는 글은 바다 밑의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라든가 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잠수정의 구조라든가 잠수부의 수중 호흡, 물속에서 휴대할 수 있는 고무천막, 잠수가 끝날 때마다 올라오지 않고도 계속 머물러서 일할 수 있는 해저 승강기 같은 잠수기술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바다 깊이 숨어 버린 잠수함 탐색 작전』에서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을 다루며, 감쪽같이 숨어 버린 소련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미국 해군의 과학적인 활동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바다 밑 세계에 대한 과학기사는 잠수함으로 대표되는 군사력의 확장<sup>38)</sup> 혹은 적국의 기밀 탐지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1960년대 『학생과학』은 바다를 소재로 다룬 과학소설에 ‘해양과학소설’이라고 구분해서 달고 있다. ‘해양과학소설’은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모티프로 차용한다. 더불어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나 바다 밑 세계의 생물, 네스호에 사는 괴물에 관한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sup>39)</sup> 『수수께끼의 바다속 괴물』(1967년 3월), 『네스호에 사는 괴물의 정체는?』(1967년 6월)이라는 글에서는 네스호의 괴물에 대한 전설을 다룬다. 네스호에는 길이 15m 정도의 괴물이 수중 음파탐지기에 잡혀 알려지지 않은 바닷속 괴물이 살고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1960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탐험대 보트가 음향탐지기로 탐지되는 물체를

37) M. 스코트 카펜터,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바다 밑 연구』, 조규상 역, 『학생과학』, 1966.7, 35쪽.

38) 최규섭, 『폴라리스 미사일 잠수함을 따라서』, 『학생과학』, 1967.4, 69-74쪽. 글의 시작에서 미국 과학잡지 Popular Mechanics에 실린 한스 한텔(Hans Fantel) 기자의 탐선기(船旗記)임을 밝히고 있다.

39) 신동한, 『사라진 대륙』, 『학생과학』, 1965.5.

쫓았으나 수심이 워낙 깊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sup>40)</sup> 『학생과학』의 해양과학소설은 오래전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의 전설과 네스호의 바다뱀 괴물의 전설을 모티프로 활용한다.

서기로(서광운)는 미국이 소련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과학기사가 실린 1967년 1월에 『해류 시그마의 비밀』이라는 해양과학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국립 수산대학의 김일환 학장은 뱀장어의 산란지를 밝혀내려는 시그마 계획을 세우고 학술조사단을 꾸린다. 일생을 생선 양식에 바친 정석기 박사의 아들인 정석조 박사를 단장으로 하고 ‘목포해양고등학교’의 박진서를 사관식당의 보이로 해서 학술조사선 충무호의 일원을 채운다. 우장춘 박사가 육지의 식량을 개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정석기 박사는 생선 양식에 일생을 바쳤다고 한 점이 흥미롭다. 서광운의 『해류 시그마의 비밀』은 아틀란티스나 네스호 괴물의 전설보다는 뱀장어 연구와 양식을 위해 조사단을 꾸미고, 가다가 괴물이 아닌 상어와 만나 싸우고 상어에 관한 지식을 알려 주는 등 현실적인 해양과학소설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현란한 학과를 내세우는 우주과학소설에서와 달리, 목포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진서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대학생에 대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갈등을 함께 담아낸다는 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앞둔 청소년의 실질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다.

반면 오민영의 『바다밑 대륙을 찾아서』는 사라진 아틀란티스 대륙과 네스호의 괴물에 관한 전설을 모두 활용하여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해양과학소설이다. 1968년 12월부터 1969년 6월까지 연재되는 『바다 밑 대륙을 찾아서』의 해양학 전공자 마라코트 박사는 최용현 청년과 스칸란과 함께 해양조사선 스트랏드포드호를 타고 바다밑을 탐험하기 위해 떠난다. 마라코트 박사의 계획은 바다 밑 5백 미터에 사는 생물을 연

40) 편집부, 「네스호에 사는 괴물의 정체는?」, 『학생과학』, 1967.6, 134-135쪽.

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아무도 사람은 그렇게 깊은 바다 밑에 간 일이 없지.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괴상한 생물**이 살고 있을 것만은 틀림없네. 나는 그와 같은 수 수끼끼의 세계를 탐험하여 심해(深海)의 비밀을 밝은 세상에 드러낼 생각일세.”  
(『바다 밑 대륙을 찾아서』1회, 『학생과학』, 1968년 12월, 99쪽)

오민영의 『바다 밑 대륙을 찾아서』는 바다 밑에 사는 생물을 연구하기 위해 떠났다가 로프가 끊어져 우연히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내려오는 전설 속 아틀란티스 대륙을 만난다. 우주 과학소설이 미래에 대한 가상의 세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터무니없는 ‘공상’의 이미지를 부여했다면, 해양 과학소설은 사라진 아틀란티스 대륙이나 네스호의 괴물, 혹은 고대 마야 제국(오영민, 『지저인 오리거』)과 같은 과거의 역사 속 전설에 기대어 현실감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1960년대 『학생과학』에는 바다 밑 세계에 관한 호기심이 과학기사나 과학소설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우주과학보다는 해양과학이 수산업의 발달과 양식업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학으로 와 닿았을 것이다.

#### 4-3. 최첨단 무기와 방첩소설<sup>41)</sup>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학소설만이 아니라 종종 범죄소설이나 추리소설, 그리고 스파이소설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학생과학』1966년 3월과 4월에는 연이어서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기묘한 과학 장치들』이

41) 1960~1970년대 과학소설이 방첩소설, 첩보소설의 양식을 띠고 있었음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최애순, 『『학원』의 해외 추리·과학소설의 수용 및 장르 분화 과정』, 『대중서사연구』 21권 3호, 2015, 294-301쪽 ‘첩보소설의 탄생과 첩보원의 탄생’ 부분 참조.

실려 있다. 3월에는 스릴러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통신망, 방향탐지기, 엿듣는 장치, 적외선 총이, 4월에는 만능 손목시계, 금고열기와 007 제임스 본드가 사용한 총을 비롯하여 스파이소설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무기인 여러 가지 권총들이 나열되어 있다.<sup>42)</sup> 스릴러 영화라고 제목이 달려 있지만, 내용은 스파이의 민첩하고 신속한 움직임을 도와주는 무기 혹은 도구에 관련된 내용이다. 기사의 말미에 스파이 활동은 첩보와 파괴활동으로 나뉜다고 하며, 파괴공작원의 무기에 대해 신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한다.<sup>43)</sup> 과학 장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스파이의 무기이다. 1966년 7월호에는 007 영화에 나오는 비행벨트, 수중익선, 소형잠수함 등의 도구와 장치들을 분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sup>44)</sup> 특히 모터 보트, 수중익선, 잠수함 같은 수중전에 적합한 도구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기사제목으로 이러한 본드의 소도구들을 ‘과학발명품’이라고 단 것이 흥미롭다. ‘스파이’ 제임스 본드는 어둠의 침입자라거나 첩자라는 이미지 대신 첨단 과학기술 대명사로 유명세를 탔다. 『학생과학』 1969년 5월호에는 소련의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미국의 스파이 위성 이야기를 신고 있다.<sup>45)</sup> 스파이 위성은 우주 공간을 회전하면서 지구에서 송신되는 온갖 기밀을 남김없이 포착한다. 『학생과학』의 스파이 관련 기사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007 영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 각국의 스파이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1960~1970년대 과학소설은 종종 스파이소설과 결합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미국의 디스커버리호나 사모스, 미더스와 같은 인공위성 역시 군사적

42) 편집부,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기묘한 과학 장치들」, 『학생과학』, 1966.4, 20-22쪽.

43) 편집부,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기묘한 과학 장치들」, 『학생과학』, 1966.4, 22쪽.

44) 편집부, 「007 영화에 나오는 기묘한 과학발명품들」, 『학생과학』, 1966.7, 30-34쪽.

45) 편집부, 「스파이 위성의 위력과 정체」, 『학생과학』, 1969.5, 27-29쪽.

인 목적에서 쓰여 올린 것이었다. <우주 수폭전>이라는 SF 영화의 원작자인 레이몬드 존스의 『별나라에서 온 소년』(소년소녀 세계 과학모험전집, 광음사, 1973)에서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나타나자 외계인의 우주선일 것이라는 생각보다 ‘미국이 개발한 비밀 무기인 것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과학소설에서도 비행접시의 출현은 적국의 스파이 위성의 출현으로 의심받았다. 『학생과학』 창간호부터 연재된 이동성의 『크로마농인의 비밀을 밝혀라』에서 괴물체의 출현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비행접시를 둘러싸고 외계인에 대한 경계보다 소련이나 중국에서 띄운 스파이 위성이 아닐까 하는 의심부터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 비행물체는 외계인에 대한 상상보다는 ‘간첩 풍선’과 동일시되었다. 수상한 비행물체에서 간첩을 떠올리는 것은 2차 교육과정의 반공교육을 받은 그 세대에서는 당연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 수상한 물체는 **중공에서 날려 보낸 간첩 풍선인가, 어떤 특수 임무를 띤 모국(某國)의 비행선인가, 아니면 외계에서 온 비행접시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신기루 같은 어떤 기상 현상인가? 홍식이 일행은 괴물같은 발광체의 원통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으니……

(이동성, 『크로마농인의 비밀을 밝혀라』 2회, 『학생과학』, 1965.12, 115쪽)

1960~1970년대 비행접시(UFO)는 국내에서 외계인에 대한 환상보다는 ‘적국’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표상이었고 그만큼 ‘괴물체’로 인식되었다. 과학의 발달은 적국의 군사기밀을 빼내는 기술이나 정보의 발달을 포함했다. 따라서 과학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납치된 과학자나 국가 정보요원을 구하기 위한 007을 방불케 하는 첩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서광운의 『관제탑을 폭파하라』(『학생과학』, 1968년 1월호부터 연재)는 통신위선 카파 B9호가 보낸 온 기상 통보가 엉뚱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낮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밤만 되면 카파 B9호가 꼭 금

강산 상공에서 변조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매년 반복된다. 일본측이 쓰아 올린 것이니까 연락을 해 주자는 예보국장의 의견과 혹 한국측 기계 고장으로 잘못 수신한 사실을 공연히 선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상청장의 염려가 엇갈린다. 유독 왜 일본의 카파 위성만이 금강산 상공에서만 변조를 일으키는 것일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한 소설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금강산의 식물 자력 연구소로 떠난 예보국장이 실종된다. 여기까지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반적인 과학소설의 서두이다. 그러나 이후 소련에 납치된 예보국장을 빼내 오는 과정은 마치 첩보소설을 방불케 한다. 카파 위성의 변조 원인으로 내세운 허력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 모호하다. 실체가 없어 막연한 허력 에너지는 독자의 머리에 잘 와 닿지 않고, 오히려 납치된 예보국장의 탈출 과정을 따라가며 읽도록 한다. '일본'의 카파 위성의 변조 원인을 알아내다가 갑자기 예보국장이 '소련'에 납치된다는 설정은 그 둘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없어 허력 에너지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관제탑을 폭파하라』는 과학소설보다 방첩소설에 가깝다. 목차에서도 징조, 행방, 잠입, 탈출, 모의, 정체, 실종, 전쟁 등과 같은 단어가 키워드로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한 징조** 예보국장의 **행방** 파카 B9호의 **비밀** **소련에 잠입하라!** 확대 연석 회의 **비둘기 6호** 발사 **국민신보** 기자 **하바로프스크** 천문대 **탈출** 모의 젊은 간호원 **청진 비행장** 예보국장의 수난 **허력 에너지** 유린 **가고파** 양의 **정체** 17호 태풍 **아이러호** **노라른스키** 교수의 논문 **허력 에너지의 완성** **가고파** 양의 **실종** **일본에 잠입하라** **전쟁**의 먹구름 **출동 명령**

『관제탑을 폭파하라』에서는 기상청의 예보국장이 소련에 납치된다. 예보국장을 구해오기 위해 정보부의 김민수에게 소련으로 잠입하라는 지령이 떨어진다. 김민수가 소련에 잠입하는 과정은 위장을 하여 소련

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런데 『관제탑을 폭파하라』에는 마치 간첩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과연 전에 교육을 받은 그대로구나./ 혼자 감탄하면서 양복의 옷웃 안주머니에서 둥그런 메달을 꺼냈다./ 태극기와 이화 무늬가 새겨 있는 정보부의 메달 뒤 쪽에는 짜름한 수나사의 꼭지가 달려 있다./ 민수는 그 꼭지를 굽어낸 화강암의 구멍에 맞추고 나사 돌리개처럼 틀어 보았다./ 영락없이 맞아들었다./ 조심스레 끝까지 돌리고 난 민수는 다시 대각선을 따라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구멍을 찾아 똑같이 메달의 꼭지를 틀어막으며 돌렸다./ (……)/ 그러자 축대의 돌문이 소리없이 열리지 않는가? 김민수는 눈물이 핑 돌 듯한 감흥을 느끼면서 발을 돌문 안으로 내딛고 밖을 살펴본 뒤, 살짝 문을 밀었다./ 돌문은 마치 친구인 양 순순히 닫혔다./ (……)/ 민수는 이미 설악산 기슭에서 이와 같은 굴 속 생활로 한 여름을 보낸 적이 있다./ 민수는 허리를 펴고 먼저 책상 서랍의 지도를 꺼내서 펼쳤다./ 소련의 접경 지대의 작전도가 역력하다.<sup>46)</sup>(28~29쪽)

위의 장면을 보면, 민수는 여지없는 스파이의 모습이다. 작전을 세우고 무전기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발신기지 델타(웅진의 비밀 기지의 부호)엔 이상이 없습니다.”(30쪽)라고 보고하며 행동을 개시하는 민수는 과학소설보다 첩보소설에 더 어울릴 법하다. 굴속 생활, 돌문, 비밀 기지, 암호, 무전기, 작전도 등의 용어들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일본의 인공위성 카파 B9호의 금강산 상공에서의 변조가 식물자력선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 6호를 띄운다. 우리 인공위성의 이름이 비둘기 6호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비둘기는 스파이의 정보통에 쓰이곤 하던 용어이기 때문이다. ‘비둘기를 날리다’가 ‘정찰 비행기를 띄우다’ 혹은 ‘정보를 전달하다’의 의미인 것은 우리나라의 방첩소설에서 익숙한 설정이다. 인공위성의 이름을 하필이면 비둘기로 한 것

46) 서광운, 『관제탑을 폭파하라』(SF 세계명작 한국편 56), 아이디어회관, 1978(1968년 『학생과학』에 연재).

은 서광운 스스로가 과학소설보다는 방첩소설이 훨씬 생생했기 때문이다. 『관제탑을 폭파하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하룡 국장을 탈출시키는 장면에서도 메탄가스의 폭발촉진제를 사용하여 폭발소리와 함께 식당 안을 이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틈을 타 예보국장을 탈출시키는 민수의 작전은 007시리즈를 방불케 한다.

이처럼 『관제탑을 폭파하라』는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명을 달고 있지만 막상 읽어 보면 첩보소설에 가깝다. ‘태풍을 폭파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인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고 새롭다. 서광운의 과학소설은 모두 기상 관측, 기상변화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관제탑을 폭파하라』에서는 제 17호 태풍 아이러호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연다. “폭파시켜서 진로를 변경시켜야만이 정통으로 엄습을 당하지 않을 게요. 이대로 놔 두면 인천근방에 상륙하지나 않을까.”(86쪽), “폭파시키자! 아무리 따져봐도 폭파시키는 도리밖에 없다. 원자탄 값과 피해액을 견주어 봐도 역시 폭파시키는 게 낫다.”(86~87쪽) 그리하여 기상청으로서는 처음으로 원자탄에 의한 태풍 폭파를 시도한다. 방첩소설과 흡사함에도 차별화되는 점은 과학소설에서의 적군은 북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으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경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일본인이 사악한 인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한다.<sup>47)</sup> 그것은 북한을 아예 과학기술의 경쟁국에서 제외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방첩소설과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1970년대 과학소설이 과학적 상상력에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서광운의 『관제탑을 폭파하라』에서 아오지와 블라디보스톡 사이를 다니는 교통수단은 ‘모노레일’이다. 차간의

47)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에서도 한국의 과학박사와 경쟁하는 것은 일본의 아마다 박사이다.

유리창이 타원형이라는 것만으로도 이국적인 정서를 풍겨 준다는 모노레일 기차는 이후 국내 과학상상그리거나 과학글짓기 대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소재였다.<sup>48)</sup> 『학생과학』은 다른 잡지에서 과학소설 용어 자체를 두고 혼란을 초래하던 것과는 달리,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명 아래의 하위 장르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주시대를 표방하는 우주과학소설이 수적으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에서도 전쟁소설이 되어 버리거나 독자적이거나 매혹적인 우주공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만다. 대신 해양 과학소설이나 방첩소설류에서는 생생하게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5. 『학생과학』이라는 지면과 국내 과학소설 작가의 괴리

『학생과학』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잡지이다. 청소년 대상 잡지인 『학원』이 중학생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했다면, 『학생과학』의 주요 타깃은 그보다 좀 더 위인 고등학생이다. 『학생과학』에서는 각 호마다 끝 부분에 효성 실업 고등학교, 경기 고등학교 등 구체적인 고등학교명과 함께 각 학교의 ‘과학반’을 탐방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나 『학생과학』에 과학소설을 실었던 작가들은 청소년 작가들이 아니라 서광운, 이동성, 강성철, 오영민 등의 SF 작가 클럽의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의 『학생과학』에 신고 있었지만 청소년 독자들로부터 등

48) 과학글짓기 대회에서 학생들은 모노레일이 정확히 어떤 면에서 더 발달된 과학기술인지도 모른 채, 이동수단으로 종종 언급하고 있다. 과학소설에서 등장했던 모노레일, 텔레파시, 비행접시, 마이크로 필름, 빔 프로젝터 등은 지금은 일상화되어 별 것 아닌 기술이지만 당시에는 첨단과학기술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고, 학생들은 과학상상글짓기 대회에서 종종 가져다 쓰곤 했다.

장인물에 왜 청소년은 나오지 않느냐는 항변을 듣기도 하고, 어렵고 생소한 용어의 나열이라는 혹독한 평을 듣기도 한다. 그렇다면 SF 작가 클럽은 왜 청소년 대상의 잡지에 글을 실었을까. 『아리랑』, 『명랑』과 같은 대중잡지에서 ‘과학소설’이란 표제를 달고 창작된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마저 실려 있는 작품도 ‘추리소설’과 같은 표제를 달고 있다. 반면에 『학원』과 같은 청소년 대상의 잡지에서는 ‘과학소설’, ‘공상과학소설’, ‘모험과학소설’ 등 용어상의 혼돈이 있기는 하지만 과학소설을 종종 볼 수 있다. SF 작가 클럽의 회원들이 청소년 대상의 잡지에 과학소설을 연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학소설이 어린이·청소년 대상이라는 당대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정부에서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한 과학소설은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에서 지면을 확보하기 쉬웠으나, 국내 창작 과학소설의 주요 필자였던 SF 작가 클럽은 청소년 대상의 과학소설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독자도 성인 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독자와의 괴리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초능력, 텔레파시, 최면을 주술이나 미술로, 서양과학이나 정신의학을 낫설고 이질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동양 사고에서 처음부터 과학소설이 아무런 마찰을 빚지 않고 유입되기는 힘들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식은 교육 정책과 청소년 계몽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하는 청소년 대상의 잡지나 전집을 불가피하게 지면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과학소설 자체의 독자적인 생존력이 상당히 약했고, 정체성마저 혼란을 겪었다. 연구자들이 청소년 잡지에 실렸다고 하여 ‘청소년 과학소설’이라 분류하고 있는 SF 작가 클럽의 작품들은 과학소설이 유입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지면이었을 뿐 그들이 청소년 과학소설 작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소설 작가들이 『학생과학』이 청소년 대상의 잡지라는 점을 마냥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학생 지면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이었으므로, 당시의 이슈화된 과학지식을 전달하려다가 너무 사실적인 나열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학 현상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기도 하고, 우주과학 시대라 우주를 배경으로 쓰긴 하지만 도통 우주라는 공간이 매혹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와 닿지도 않고 6·25나 베트남전이 훨씬 생생하여 ‘전쟁소설’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과학소설이 ‘공상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우주나 바다 밑 세계를 그릴 때에도 식량문제를 고민했고, 기상변화가 과학소설의 서두에 종종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우주과학소설만 부각되었던 국내 과학소설은 『학생과학』 지면에서는 다양한 하위 장르가 발달하고 있었다. 수적으로 우세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낯설고 먼 우주과학소설보다 해양과학소설이라든가 스파이소설 등의 발달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생활 과학과 과학소설의 긴밀한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과학소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학소설이 철저하게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학생과학』에서도 과학교육이 과학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업 고등학교와 실업 고등학교의 발달 역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과학은 ‘이상’이라기보다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과학소설은 그런 과학교육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낯선 과학용어나 전공도 과학소설 속에서 소재로 반복해서 가져옴으로써 청소년 독자가 익숙해지도록 유도하였다.

## 참고문헌

- 고장원, 『SF의 법칙』, 살림, 2012.
- \_\_\_\_\_,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 김이구, 『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창비어린이』 3-2, 2005, 156-171쪽.
- 김재국, 『한국 과학소설의 현황』, 『대중서사연구』 5권 1호, 2002, 93-116쪽.
- 김지영, 『한국 과학소설의 장르소설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32집, 2013, 375-397쪽.
- \_\_\_\_\_,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 『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5집, 2013, 125-149쪽.
- \_\_\_\_\_, 『한국 과학소설의 환상성 연구-오영민의 『화성호는 어디에』와 『마의 별 카리스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9집, 2015, 191-222쪽.
- 대중서사연구회,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 모희준, 『냉전시기 한국 창작 과학소설에 나타난 종말의식 고찰』, 『어문론집』 65, 2016, 127-144쪽.
- \_\_\_\_\_, 『한낙원의 과학소설에 나타나는 냉전체제 하 국가 간 갈등 양상』, 『우리어문연구』 50집, 2014, 223-248쪽.
- 박상준 엮음, 『멋진 신세계』, 현대정보문화사, 1992.
- 복도훈, 『한국의 SF, 장르의 발생과 정치적 무의식-복거일과 듀나의 SF를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36-2, 2008, 49-68쪽.
- \_\_\_\_\_, 『단 한 명의 남자와 모든 여자: 아마겟돈 이후의 유토피아와 섹슈얼리티』,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 345-373쪽.
- 손종업, 『문운성의 『완전사회』와 미래의 건축술』, 『어문론집』 60, 2014, 239-263쪽.
- 우미영, 『한국 현대 소설의 ‘과학’과 철학적·소설적 질문-김보영과 배명훈의 SF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5, 2014, 121-141쪽.
- 이 숙, 『문운성의 『완전사회』(1967) 연구-과학소설로서의 면모와 지배이데올로기 투영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2, 2012, 225-253쪽.
- 임태훈, 『1960년대 남한 사회의 SF적 상상력-재앙부조, 완전사회, 학생과학』, 『우애의 미디어로지』, 갈무리, 239-273쪽.
- 조계숙, 『국가이데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 『학생과학』지 수록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2014, 415-442쪽.
- 조성면, 『SF와 한국문학』, 『대중문화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178-205쪽.

-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 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집, 2013, 213-242쪽.
- \_\_\_\_\_, 『『학원』의 해외 추리·과학소설의 수용 및 장르 분화 과정』, 『대중서사연구』 21권 3호, 2015, 275-320쪽.
- 최정원, 『한국 SF 및 판타지 동화에 나타난 이동상 소고(小考)』, 『한국아동문학연구』 14호, 2008, 173-202쪽.
- 추재욱, 『빅토리아 시대 과학소설에 나타난 진화론에 대한 연구』, 『영어영문학』 59권 5호, 2013, 689-712쪽.
- 한금윤, 『과학소설의 환상성과 과학적 상상력』, 『현대소설연구』 12, 2000, 89-110쪽.

## Abstract

Features of domestic science fiction in the 1960~1970's  
- concentrated on *Science for Students*

Choi Ae-Soon(Keimyung University Tabula Rasa Collage)

This paper tried to analyze the research tendency of domestic science fiction(SF) in the 1960~1970's. The subject of study is SF writers' club's work, particularly Seo Kwang-oon's science fiction. These works were published by the magazine of *Science for Students*. Therefore, SF writers' club's works were classified as science fiction for adolescents.

The paper studied why the gap between SF writers and readers emerged. It explained this in that domestic SF in the 1960~1970's experienced an identity crisis between fiction and real science. Therefore, SF writers' club members described space wars in the context of war on Earth, for example in 6·25 or the war of Vietnam.

SF writers of *Science for Students* also considered writings on telepathy or the supernatural as superstition and doubted that it would be science, as well as denying the therapy of neurosis, psychiatry. Science fictions include new scientific technique, but the new developments were often refused. Domestic SF was confused by the conflict between science and superstition.

(Key Words: fantasy, science fiction, fantasy & science fiction, a war novel, spy-thriller, technology, Seo Kwang-oon, superstition, telepathy, the universe, SF writers' club, Testimony of Polaris, Blow up the control tower)

논문투고일 : 2017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2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2월 14일